

도시문제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나선다

국토교통부 공모 프로젝트 선정 지역기업 8곳·시민들 함께 참여 교통량·유동인구·상권 등 모아 광주만의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시민과 지역기업이 교통량·유동인구 등 도심 데이터를 한데 모아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생활문제 해결을 노리는 스마트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스마트시티 헬린지 사업'에 광주시의 '빛고를 데이터 민주주의 1번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스마트시티 헬린지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솔루션의 실증·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전국 48개 자치단체가 기업(민간)과 짝을 이뤄 공모했는데, 광주·대전 등 7개 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자치단체에는 각각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이 가운데 프로젝트 추진 실적이 우수한 1~2개 자치단체에는 내년 200억원의 본사업비가 지원된다. 광주시가 추진할 '빛고를 데이터 민주주의 1번가' 프로젝트는 시민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데이터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권 활성화

분석, 유동인구 분석, 교통흐름 분석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재투자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플랫폼 정보 구축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일정부분 보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서비스의 단순 수요자였던 시민이 직접 도시문제에 적극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대전과 경기도 수원시 각각 LG,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광주는 글로벌·조인트리·엑스엠·경우시스테크·아이엠알·쏘우에이브·쌍용소프트웨어·엔텔스 등 지역기업 8곳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지역과 달리 지역 업체들의 사업 계획과 참여 의지가 아주 크다. 지역 특성을 꿰뚫고 있는 지역 기업과 시민이 함께 추진하게 돼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아 광주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센터구축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고, 백운광장, 광주역 주변 등 도시재생사업지역, 인공기능 중심 산업 융합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3지구, 군 공항 이전부지 등 신도시에 모델을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분양가격 40%만으로 즉시 입주 가능 산수동 호두메마을 아파트 일반 분양

광주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한편, 호두메마을은 도시재생 시범 사업으로 시행됐으며, 고층·고밀집 방식을 탈피한 5층의 저층 구조로 입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사업이다. 특히 호두메마을은 1층 필로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건축방식을 벗어나 1층의 높이가 5~10m로 높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한, 각 동을 U자형으로 배치해 입주주민간에 커뮤니티를 배려했다. 단지 인근에 울곡·장원초등학교가 근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두암중학교와 광주고등학교, 조선대학교, 교육대학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제2순환도로와 필문대로가 인근에 있는데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예정돼 구도심에 돋보이는 교통여건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무등산국립공원과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 시공으로 주택의 안전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시보건환경연구원 산단·놀이터 등 95곳 토양오염 실태조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산업단지·공장지역·어린이놀이시설 등 11개 지역 95개소를 대상으로 올 9월까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을 조기에 찾아내 오염 확산을 막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부터 1,2-디클로로에탄(이염화 에틸렌) 항목을 추가한 총 23개 항목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해당 사업장 관할 자치구에서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 정밀조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명령과 오염 토양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1개 지점에서 아연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구에서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으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대책 등을 추진한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토양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염우려 지점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드론비행연습장 이달 개장 7일 오전 문인 북구청장이 광주시 북구 대촌동에 위치한 '북구 드론 비행연습장'을 방문해 드론비행을 보고 있다. 드론비행연습장은 북구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지난 3월 조성해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이달내에 정식 개장 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지진·항공사고 VR...안전체험 한마당

市소방본부 9~11일 DJ센터 주요 체험내용은 ▲소화기, 심폐소생술, 전기, 가스, 승강기, 지하철, 지진·항공 등 VR(가상현실)체험, 식생활 안전, 정신건강 등 30개 생활안전체험 ▲전연순세심리상담 등 10개 흥미전시체험 ▲다문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존중, 아동의 권리를 배우는 2개의 인권체험 등이다. 9일 오전에는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안전광주' 대박 터트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오전 11시30분 인형극, 오후 2시40분 소방관 마술 공연, 한국119소년단 우수시범학교 발대식, 오후 3시40분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이 열린다. 9일과 10일 오전 10시30분에는 인명구조원 훈련시범이, 10일 오전 11시부터는 K-POP 댄스, 11일 오전 11시에는 소방관 마술 공연과 안전광주그리기대회 시상식이 진행된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빛고를 안전체험한마당은 광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안전체험행사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며 "사고예방과 안전실천 생활화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빛고을안전체험 한마당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시교육청, 한국소방안전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후원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빛고을안전체험 한마당은 해마다 1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단위 체험객이 방문하는 호남 최대 안전체험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김형호 기자 khh@

올 첫 SFTS 환자 발생...야외활동 진드기 주의보

광주시는 "지난 2일 충남에서 올해 첫 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보고됐다"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SFTS는 통상 4~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잠복기인 4~15일 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이 있다.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이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상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866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4명이 사망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6년 1명, 2017년 2명 등의 환자가 발생해 1명(2016년 발생자)이 사망하기도 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시 긴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진드기가 서식하는 풀밭에 눕지 말고, 야외 활동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광주시 관계자는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 진드기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예방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만큼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5월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